

# 노동신문으로 본 김정은 시대 평양의 국영상점<sup>1)</sup>

황주희 |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 juhee@kinu.or.kr

## I. 머리말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고 일컫는 북한의 경제위기는 에너지와 중간재 공급을 어렵게 하면서 국영상점을 통한 소비재 공급구조를 유지할 수 없게 하였다. 배급은 사실상 폐지되었고 북한주민들은 자연스럽게 필요한 소비품을 시장에서 구매하게 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실패는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백화점을 개건하거나, 편의점처럼 새로운 유형의 국영상점을 도입하는 등 유통시장 환경에서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평양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고는 김정은 시대 북한 평양시의 상업시설, 특히 국영상점을 연구대상으로 그 종류와 입지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장을 제도 내로 포섭하고 있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 유통시장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북한의 시장, 소비재, 경공업, 유통 등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국영 상업망을 대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평양시의 국영상점을 통해 유통시장 변화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된다.

본 연구에서 사회주의 상업시설은 국영상점으로 한정하였고 식당 같은 서비스업종 내 상업시설(상점)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201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 ‘상점’을 키워드로 『노동신문』에서 보도된 기사를 대상으로 하여, 단순 상점명 언급 기사를 포함, 총 550건의 기사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 시기 보도된 상점이 정상 운영한다는

1) 본고는 2023년에 통일연구원에서 홍민·김혁·차문수·황주희가 수행한 연구보고서 『평양의 도시정치와 공간구조』의 일부 내용을 요약, 수정한 것이다.

것을 전제로 한다. 본 연구는 『노동신문』 양적 분석, 북한 문헌의 질적 분석,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노동신문』의 양적 분석을 위해서 KISTI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에서 개발한 북한데이터분석시스템(NKDIA)을 사용하였다.

## II. 사회주의 상업

북한에서 국영상점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실질적인 폐업에 들어갔다. 2003년, 북한은 시장의 합법화 조치를 하면서 시장 판매를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국영상점을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였다. 중국제품을 수입해 개인이나, 무역 회사 등이 시장 가격으로 국영상점에서 판매하는 것도 허용되었으며 상점, 기관·기업소 직매점, 분점 등 국영 상업유통망에 시장 경제적 요소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2006~07년 사이 개인에게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던 수익성이 높은 국영상점의 경영권을 중앙정부로 환원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대부터는 약 20년 만에 상점 운영을 가동하기 시작하는 등 국영 상업망을 복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경공업의 발달을 강조하고 2012년 공동구호로 ‘경공업이 용을 쓰는 해,’ ‘인민들이 경공업의 덕을 보는 해로 되게 하라!’로 지정하였다. 북한 당국은 현재 대규모 상업망, 유통시설 등을 직접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2)</sup> 2017년 북한은 보도에서 “평양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의 어느 상업망들에 가보아도 우리의 상표를 단 경공업제품들이 들어차 우리것의 영역이 계속 넓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하였다.<sup>3)</sup> 경공업 발전을 통한 공급 확대가 어느 정도 유통시장에 변화를 불러온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김정은 시기 북한은 우리국가제일주의, 자력갱생 등을 강조하면서 국산품 소비를 애국과 연결하여 애용하는 기풍을 강조하고 있다.<sup>4)</sup>

2020년 북한은 본격적으로 국가상업체계, 사회주의 상업에 대한 복원을 강조하고 국영 상업망을 통한 상품유통 활성화를 요구하였다. 북한은 이 같은 유통 활성화의 목적이 당국의 자금확보에 있다고 밝혔다.<sup>5)</sup> 이러한 의지는 2021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도 확인되는데, 회의는 국가적인 생산물, 수입 물자 관리와 유통 사업을 강조하였다.<sup>6)</sup> 2023년

2) 이석기 외, 『북한의 서비스산업』 세종, 산업연구원, 2017, p.90; 전현준 외,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통일연구원, 2009, p.232; 박희진, 「김정일 체제의 경제적 유산과 북한경제 전망: 거점개방과 빈개혁의 이중주」, 『KDI 북한경제리뷰』, 2012년 5월호, 2012, p.41; 『노동신문』, 「(2012년을 경공업이 용을 쓰는 해, 인민들이 경공업의 덕을 보는 해로 되게 하라! (공동구호에서)) 보다 문명하고 윤택한 생활조건을 - 우시군에서」, 2012. 1. 23.

3) 『노동신문』, 「(당의 경공업정책을 받들고 하루빨리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경쟁속에 비약하고 또 비약하자」, 2017. 6. 24.

4) 『노동신문』, 「우리의것을 애용하자」, 2019. 6. 5.

5) 『노동신문』, 「[론설] 현시기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돈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2020. 3. 7.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7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상품유통법’을 채택하였다. 이 법은 “상업망의 조직운영과 상품의 확보, 공급 및 판매를 비롯하여 상품유통전반에 대한 국가의 조절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법적요구들이 상품유통법에 세부적으로” 규제되어 있다.<sup>7)</sup> 아직까지 법 전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상품유통에 대한 부문이 별도로 법제화되었다는 것은 상품유통 통제에 대한 국영 부문이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의 상품유통은 ‘상업법’에서 일부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다. 북한은 1992년 상업법을 제정한 이후로 김정은 시대 2019년, 2020년, 2021년 총 3차례 개정하고 사회주의 상업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사회주의 상업의 역할 확대이다. 기존 법(2010년)은 사회주의 상업을 “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이라고 규정<sup>8)</sup> 하고 있는데, 개정된 법에서는 “사회주의상업에는 상품공급 및 판매, 사회급양, 편의봉사, 수매 같은 것이 속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sup>9)</sup> 더불어 기존에는 ‘상품공급’의 원칙만이 명시되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상품공급 및 판매 원칙’까지 제시하고 있다. 사회공급 및 판매와 관련해서 북한 법은 식료품, 상비상품(일용잡화, 건재상품, 농촌상점), 어린이용 상품, 여행자용 상품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상업법 제24조는 중앙기관 직매점에서 부문 기업소에서 제작한 상품 위주로, 시·군 직매점의 경우 8월3일인민소비품을 기본으로 하여 판매할 것을 허용한다.<sup>10)</sup> 상점, 식당, 편의봉사망을 운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도(직할시) 인민위원회의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sup>11)</sup>

본 연구는 국영상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에서 상점이란 “일정한 설비를 갖추어놓고 상품을 직접 파는 상업망의 기본단위”<sup>12)</sup>를 뜻하며 수매상점은 “물품을 수매받거나 그것을 다시 파는 상점”<sup>13)</sup>을 말한다. 종합상점은 “주민들의 여러가지 상품에 대한 수요를 종합적으로 충족시킬 목적 밑에 공업품과 식료품을 아울러 파는 상점”으로 “여러개의 상점을 망라하는 독립채산제기업체”로 정의된다.<sup>14)</sup> 직매점이란 기관, 기업소가 생산물의 일부를 직접 소비자에게 파는 상점을 일컬으며<sup>15)</sup> 구역직매점은 8월3일인민소비품을 판매한다.<sup>16)</sup>

6) 『노동신문』, 「당대회결정관철의 첫째 진군을 자랑한 혁신과 전진으로 빛내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2021. 2. 12.

7) 『노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7차전원회의의 진행」, 『노동신문』, 2023. 8. 31.

8) 사회주의 상업법(2010),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下』, 서울: 국가정보원, 2017, p.30.

9) 사회주의 상업법(2021),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下』, 서울: 국가정보원, 2022, p.88.

10) 사회주의상업법(2021),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위의 책, p.90.

11) 사회주의상업법(2021), 제83조. 위의 책, p.99.

12)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p.1260.

13) 위의 책, p.1487.

14)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p.449.

15) 위의 책, p.630.

16) 『노동신문』, 「구역에서 직매점을 꾸려놓고 거기에 공장, 기업소들에서 국가계획에 없는것을 더 생산한 세소상품들과 가내생산협동조합, 가내적업반들에서 만든 소비품을 가져다놓고 팔게 하면 구역별로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경쟁을 벌일수 있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시여」, 2019. 8.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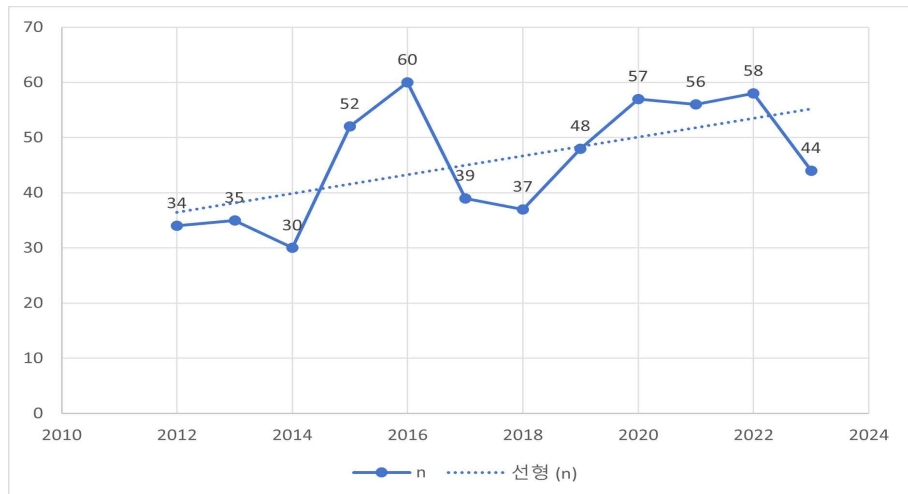
### III. 노동신문으로 본 평양의 국영상점

김정은 시기 『노동신문』(2012. 1~23. 12)에서 보도된 ‘상점’과 관련된 보도는 총 1,566건이며 이 중 ‘평양시 상점’과 관련된 기사는 550건으로 전체 보도의 약 35%를 차지한다. 이는 상점의 운영이 평양시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12년 이후 노동신문에서 평양 상점에 대한 보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보도 빈도는 2012년 대비 2022년에 약 2배 증가하였다. 2023년에는 그 보도가 44건으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인 보도의 증가추세는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평양의 상점과 관련된 보도는 2012년 4월에 만수교고기점이 준공되고 보통문거리고기상점이 중구역과 대성구역, 선교구역과 사동구역, 력포구역과 삼석구역에서 운영을 시작하면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15~16년 상점의 보도 빈도가 특히 높은 이유는 경상황금벌상점 개업, 창광상점 신규 건설, 미래상점의 이전 및 현지 지도 등의 이유로 파악된다. 미래상점은 과학자, 교육자들을 위한 상점으로 알려졌다.

[그림 1] 『노동신문』 평양 상점 보도 빈도(2012~23)



자료: 황주희, 「노동신문으로 본 김정은 시대 평양의 상업공간 이해」, 『평양의 도시정치와 공간구조』, 통일연구원, 2023, p.121.

〈표 1〉 『노동신문』에서 보도된 구역별 평양 상점 수(201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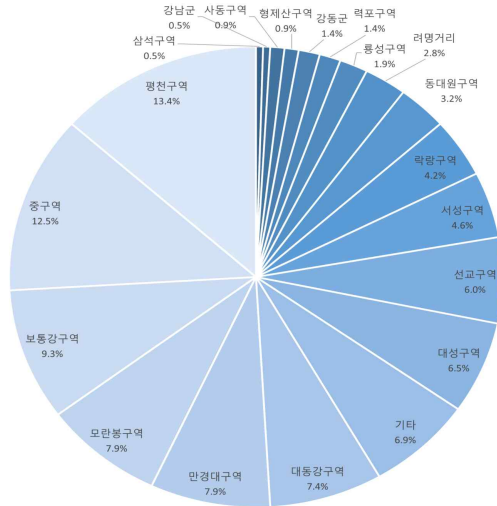
지역	상점수	지역	상점 수	지역	상점수	지역	상점수
평천구역	29	대동강구역	16	동대원구역	7	사동구역	2
중구역	27	대성구역	14	려명거리*	6	형제산구역	2
보통강구역	20	선교구역	13	룡성구역	4	강남군	1
모란봉구역	17	서성구역	10	강동군	3	삼석구역	1
만경대구역	17	락랑구역	9	력포구역	3	기타	15

주: 렬명거리의 경우 대성구역과 모란봉구역에 걸쳐서 위치. 지역명 대신 렬명거리로 구분

『노동신문』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평양 상점의 수는 중복을 제외하고 216개로 파악된다. 상점의 유형은 상점, 종합상점, 식료품상점, 공업품상점, 과일납새상점, 농촌상점, 수매상점, 수매분점, 도매소 산하 상점, 관리소 산하 상점, 사업소 산하 상점 등으로 구분된다. 보도 빈도가 높은 북한의 상점은 ①미래상점, ②평양안경상점, ③만수교고기상점, ④창광상점, ⑤평양지하상점, ⑥보통문거리고기상점, ⑦류경안과종합병원 안경상점, ⑧서성구역공업품종합상점, ⑨모란봉구역 식료품 종합상점, ⑩만경대구역 식료품 종합상점 순으로 나타났다. 미래상점, 창광상점은 남한식 대형마트로 일반 상점과는 구별된다. 평양지하상점은 중구역에 위치한 평양의 대표적 상점이다. 이 상점에서는 2017년, 2018년, 2019년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가 열렸다. 2023년에 개최된 봄철전국상품전시회, 전국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 국제상품전람회의 현물전시회 등 평양지하상점은 북한의 규모 있는 전시회 개최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의 상점은 보통 지역명으로 상점의 이름을 나타낸다. 상점의 지역별 분포 수는 평천구역, 중구역, 보통강구역, 모란봉구역, 만경대구역, 대동강구역 순으로 파악된다. 상점의 보도 빈도를 상점의 운영 활성화 정도로 가정한다면, 북한의 상점은 대동강 북한의 전통적 평양 중심지를 중심으로 국영상점의 기능이 복구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통적 평양 중심지로 일컫는 북한의 본평양 구역은 평천구역, 중구역, 보통강구역, 모란봉구역, 서성구역 등으로 보도의 47.6%가 본평양에 위치한 상점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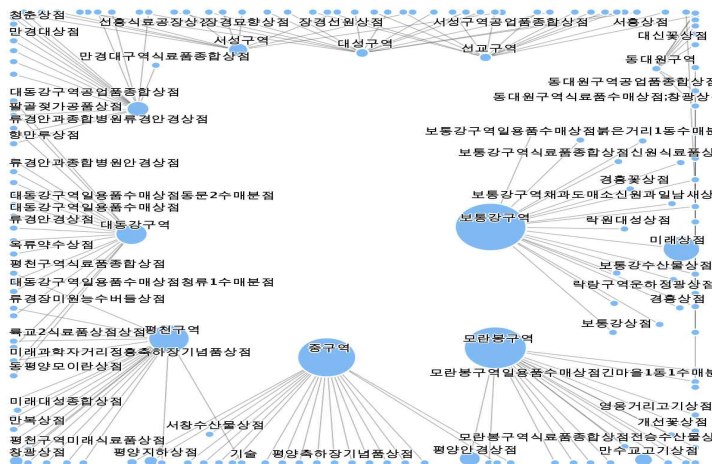
[그림 2] 『노동신문』에서 보도된 평양 상점의 구역별 포지션(2012~23)



자료: 황주희, 「노동신문으로 본 김정은 시대 평양의 상업공간 이해」, 『평양의 도시정치와 공간구조』, 통일연구원, 2023, p.123.

북한 상점의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구역 단위로는 모란봉구역, 중구역, 보통강구역, 상점 단위로는 미래상점, 평양안경상점, 만수교고기상점, 류경안경상점이 보도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3] 『노동신문』에 보도된 평양 상점의 Network Graph(201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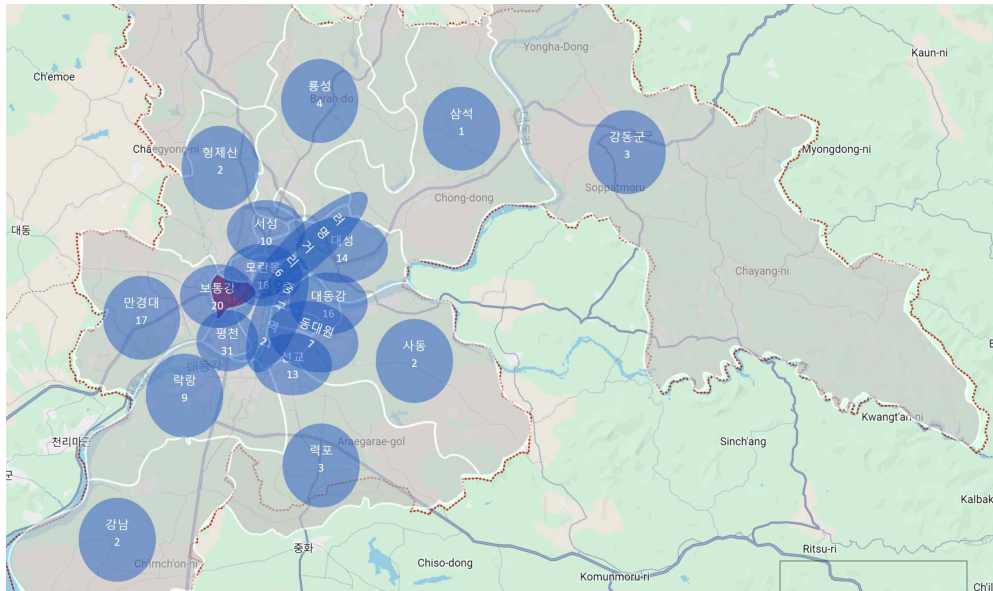
자료: 황주희, 「노동신문으로 본 김정은 시대 평양의 상업공간 이해」, 『평양의 도시정치와 공간구조』, 통일연구원, 2023, p.124.

평양의 외곽지역은 강동군, 삼석구역, 사동구역, 력포구역, 강남군으로 분류되는데, 이 지역에 위치한 상점의 수는 중심 구역에 비해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보도에 따르면, 선교구역의 공업품종합상점 안에 10여 개의 상점이, 만경대구역의 공업품종합상점 안에는 20여 개의 상점이 입점하고 있다.<sup>17)</sup> 상점의 규모 면에서도 평양의 중심 구역에 위치한 상점이 평양의 외곽지역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평양 지역은 대성구역, 대동강구역, 동대원구역, 선교구역, 사동구역으로 구분되는데, 본평양 다음으로 동평양 지역에 상점이 많이 입지하고 있다. 북한은 2014년 ‘동평양지구 상업거리’를 착공하는 등 상업중심거리를 동평양 지역에 조성하고 있다.<sup>18)</sup>

본평양, 동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상점의 상권이 발달한 것으로 이해되며, 노동신문에서 보도되지 않은 상점까지 파악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 『노동신문』에서 보도된 평양 상점의 입지(2012~23)



자료: 황주희, 「노동신문으로 본 김정은 시대 평양의 상업공간 이해」, 『평양의 도시정치와 공간구조』, 통일연구원, 2023, p.125.

17) 『노동신문』, 「집집의 문을 두드리는 정다운 소리: 선교구역공업품종합상점 일군들과 봉사자들의 미담을 두고」, 2016. 3. 30; 『노동신문』, 「보여 주기사업을 정상적으로」, 2023. 3. 17.  
18) 『노동신문』, 「동평양지구 상업거리 착공식 진행」, 2014. 11. 7; 2014년 착공식 보도 이후 동평양지구 상업거리와 관련된 통합 기사가 확인되고 있지 않음.

〈표 2〉 『노동신문』에 보도된 평양의 직매점(2012~23)

상업시설명	위치
강동군 직매점	강동군
대동강구역 직매점	대동강구역
대성구역 직매점	대성구역
동대원구역 직매점	동대원구역
락랑구역 직매점	락랑구역
력포구역 직매점	력포구역
만경대구역 직매점	만경대구역
선교고려약공장 직매점약국	선교구역
선교구역 직매점	선교구역
평천구역 직매점	평천구역
평천고려약공장 직매점	평천구역

자료: 황주희, 「노동신문으로 본 김정은 시대 평양의 상업공간 이해」, 『평양의 도시경치와 공간구조』, 통일연구원, 2023, p.128.

직매점의 경우 상점에 비해 보도 빈도가 낮으며 보도된 직매점은 대부분 평양의 외곽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직매점에서는 8월3일인민소비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14년 보도에 따르면 8월3일인민소비품 생산이 2013년 대비 1.7배 상승하였다.<sup>19)</sup> 2020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에서는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계획을 113%, 2022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는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계획을 116%로 수행하였다고 보도된 바 있다.<sup>20)</sup> 북한은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보도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평양시에서는 100여 종에 75만여 점의 각종 수지제품과 철제일용품이, 평안남도에서는 150여 종에 28만여 점의 세소상품을 생산했다. 북한은 8월3일인민소비품 생산계획에 미달한 단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소비품생산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sup>21)</sup>

19) 『노동신문』, 「(전국가적으로 경공업을 중시하고 경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김정은, 8월 3일인민소비품생산 1.7배 달성」, 2014. 3. 19.  
20) 『노동신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에서 한 토론) 군의 특성을 살려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켜나가기다 리금육대의원」, 2020. 4. 13; 『노동신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한 토론)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나가겠다 김창남대의원」, 2022. 2. 8.  
21) 『노동신문』, 「봉화식료공장, 신포수산사업소, 강계경목생산사업소, 신포물고기통출입공장을 비롯한 일부 단위에서도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올해 경제과업들중 급선무의 하나인 소비품생산을 강력히 내밀자) 책임을 걸머지고 더욱 분발해야 한다 최근 각 도들에서의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경정을 놓고」, 2022. 8. 3.

## IV. 평양 국영상점 종합평가

평양의 경우 국영상점의 공급 기능이 일정 부분 회복되고 있으며 판매와 유통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 집권 이전 시기와 대비되는 특징이다. 2020년 『조선신보』는 “평양에는 구역 안의 매 동들마다 식료품상점이 있는데 나라의 시책에 따라 간장, 된장, 기름을 비롯한 기초식품으로부터 달걀, 고기, 당과류 등 각종 식료품들이 이곳을 통하여 주민세대들에 공급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sup>22)</sup> 이 같은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평양에서 거주했다는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평양의 경우 기본 생필품(치약, 칫솔, 비누 등), 식료품(간장, 된장, 달걀, 맥주, 사탕, 과자, 고기, 기름) 등이 공급되고 있으며, 김정은 시기 들어 인민반을 통해 3개월에 한 번 정도 일반 상점에도 공급표를 제공한다고 한다.<sup>23)</sup> 평양의 경우 국영상점이 그 기능을 일부 회복하고,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식료품의 국산화가 일정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주민 역시 북한산에 대해 높은 선호를 가진다. 북한이탈주민은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의 상점에서 식료품의 경우 중국산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국산화되었다고 전했다. 중국제품에 대한 불신으로 지방에서도 중국산보다 평양에서 생산되는 북한산 식료품에 대한 선호가 높다고 한다. 다만 공업품의 경우는 여전히 중국상품의 비율이 높다고 한다.<sup>24)</sup> 상점의 이용 실태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시장은 매대가 너무 많고 국산품, 수입품, 중국산 제품들이 많아서 필요한 상품을 찾는 데 긴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고 북한이탈주민은 전했다. 반면, 상점은 시장보다 가격이 조금 높지만 국산품이 많고 질 좋은 상품들을 빠르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상점을 찾는 주민이 많다고 한다.<sup>25)</sup>

셋째, 김정은 집권 이후 국영상점의 현대화가 추진되고 있다. 북한은 국영상점을 개건, 현대화하면서 세련된 상업시설로 특화하고 있다. 이 자체가 북한 주민에게 상점을 이용하게 하는 유인책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영상점의 인테리어, 판매 방식은 기존 시장과 차별적인 경쟁력을 가진다. 즉, 시장은 낡고 오래된 이미지, 국영상점은 ‘팬시(Fancy)’한 이미지로 북한의 소비자를 끌어당기고 있다.

넷째, 국영상점에 판매 기능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판매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북한의

22) 『통일뉴스』, 「평양에 신나물상점으로 소문난 룡흥식료품상점」(조선신보), 2020. 5. 14.

23) 2017년에 탈북한 평양 출신 북한이탈주민 1씨 증언, 2023. 12. 4. 인터뷰.

24) 2017년에 탈북한 평양 출신 북한이탈주민 1씨 증언, 2023. 12. 4. 인터뷰.

25) 2019년에 탈북한 청진 출신 북한이탈주민 2씨 증언, 2023. 12. 1. 인터뷰.

일부 상점에서는 ‘슈퍼마켓’ 형식의 상품 판매 방식을 도입하였다. 기존 상점은 고객이 요청하면 판매원이 해당 물품을 꺼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현재 상점은 소비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고르고 판매원에게 결제하는 ‘쇼핑’의 판매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같은 판매 방식이 평양아동백화점, 평천구역 미래공업품상점, 서성구역 장경식료품상점, 사동구역 장천상점 등에서 성과를 거두고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sup>26)</sup>

다섯째, 체인상점이 등장하였다. 2014년 12월, 평양에 편의점 형식의 ‘황금별 상점’이 도입되었다. 북한은 황금별 상점을 ‘새로운 형태의 상업’으로 소개한다. 이 상점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며 체인 형태로 보통강구역, 중구역 등 세 군데에서 동시에 개점했으며 이후 모란봉구역, 락랑구역, 평천구역 등 평양 중심 지역을 기반으로 확대하고 있다.<sup>27)</sup>

마지막으로 상점 운영이 전산화된 것이 특징이다. 상점의 판매방식에서도 전산화를 도입하고 있다. 평양시 평천구역 식료품종합상점의 경우 산하에 40여 개의 식료상점들이 입점하고 있으며 상품의 구입·보관·공급·판매 등의 경영 업무가 전산화되어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 미래식료품상점의 경우 카드 결제기를 도입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된다.<sup>28)</sup> 북한이탈주민은 남녀가 데이트할 때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일종의 매력 포인트로 작용한다고 증언하였다.<sup>29)</sup> 이러한 문화적 인식은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유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유통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종합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영 상업망이 일정 부분 회복되는 추세가 관찰되고 있다. 노동신문 분석 결과 평양시 안에만 200여 개의 국영상점이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북한 당국이 스스로 유통업 분야에서 시장 경제적 행위자로 등장하고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북한 당국이 직접 대형 유통업에 진출하고, 외국과 합영합작을 통해 유통시설을 신설하고 있다.<sup>30)</sup>

북한은 공급 기능 정상화, 국산품의 질 제고, 국영상점의 판매 방식 도입 및 개선, 체인상점 도입, 상점 운영 전산화, 상점의 현대화 전략 등을 통해서 국영상점을 부활시키고 카드 사용의 활성화 등으로 내수시장에서 공식부문의 경제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과거 종합시장과 국영상점은 경쟁적 구도로 운영되었는데, 김정은 시기의 국영상점은 현대화·고급화 전략으로 종합시장과는 차별되는 소비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김정은 시기 북한이 취한 경제개혁조치는 시장 운영 원리를 제도 내로 포섭하고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26) 『연합뉴스』, 「북한서도 고객이 직접 골라 산다...각 상점, ‘슈퍼마켓식’ 변신」, 2020. 7. 12.

27) 이석기 외, 『북한의 서비스산업』, 산업연구원, 2017, p.95.

28) 『통일뉴스』, 「북 평천구역식료품종합상점, 경영활동 과학화로 주목 끌어」, 2018. 7. 24.

29) 2017년에 탈북한 평양 출신 북한이탈주민 1씨 증언, 2023. 12. 4. 인터뷰.

30) 이석기 외, 『북한의 서비스산업』, p.18.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면서 자영업을 제도내로 수용하고 국영상점의 역할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영 상업망의 활성화는 국영 유통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김정은 시기 경제개혁조치가 체제 내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계획·통제·시장의 상생이며, 경제 개혁적 요소가 사회적으로 안착하면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의 과정으로 보인다. 국영상업의 부활은 공장, 기업소, 상점의 가동 비율을 높이면서 기업 이익금, 사회보험료, 토지사용료 등의 정부 수입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화폐 유통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앙은행 → 기관·기업소 → 주민 → 국영상점 → 중앙은행’으로 순환되는데, 북한주민들이 은행에 대한 불신이 높고 북한 상품의 유통망 붕괴로 화폐 공급과 환수 사이의 불균형이 존재해 왔다. 즉, 공급된 현금이 공적 시장보다는 암시장에서 더욱 많이 통용되어 온 것이다.<sup>31)</sup> 김정은 시대 시장이 제도화되고 국영상점의 판매가 허용되기 시작하면서 암시장에 누적된 화폐가 국고로 환수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현금 유통 체계의 회복은 다시 중앙은행의 통화조절 능력을 향상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북한 국영상점에 대한 기초연구로 향후 북한 주민의 상점 이용에 관한 실질적 연구가 요구된다. 더불어 북한의 국영 상업망의 규모에 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1) 『북한 경제 백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p.46.

## 참고문헌

-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下』, 국가정보원, 2017.  
\_\_\_\_\_, 『북한법령집 下』, 국가정보원, 2022.  
김영희, 「최근 북한 소매상업의 현황」, 『Weekly KDB Report』, 20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한 경제 백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박희진, 「김정일 체제의 경제적 유산과 북한경제 전망: 거점개방과 반개혁의 이중주」, 『KDI 북한경제리뷰』, 2012년 5월호.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2』, 사회과학출판사, 2017.  
\_\_\_\_\_, 『조선말대사전 3』, 사회과학출판사, 2017.  
이석기 외, 「북한의 서비스산업」, 산업연구원, 2017.  
전현준 외,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통일연구원, 2009.  
최지영 외,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소비재 생산과 유통실태』, 통일연구원, 2023.  
홍민 외,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통일연구원, 2022.  
홍민 외,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16.  
홍민 외, 『북한 주요 도시 경제 인프라 지도』, 통일연구원·기획재정부, 2023.  
황주희, 「노동신문으로 본 김정은 시대 평양의 상업공간 이해」, 『평양의 도시정치와 공간구조』, 통일연구원, 2023.

### <웹사이트>

- 『노동신문』, 「〈2012년을 경공업이 용을 쓰는 해,인민들이 경공업의 덕을 보는 해로 되게 하라!(공동구호에서)〉 보다 문명하고 윤택한 생활조건을 - 우시군에서」, 2012. 1. 23.  
\_\_\_\_\_, 「《전국가적으로 경공업을 중시하고 경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김정은,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 1.7배 장성」, 2014. 3. 19.  
\_\_\_\_\_, 「동평양지구 상업거리 착공식 진행」, 2014. 11. 7.  
\_\_\_\_\_, 「집집의 문을 두드리는 정다운 소리: 선교구역공업품종합상점 일군들과 봉사자들의 미담을 두고」, 2016. 3. 30.  
\_\_\_\_\_, 「〈당의 경공업정책을 받들고 하루빨리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경쟁속에 비약하고 또 비약하자」, 2017. 6. 24.

- \_\_\_\_\_, 「우리의것을 애용하자」, 2019. 6. 5.
- \_\_\_\_\_,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시여」, 2019. 8. 3.
- \_\_\_\_\_, 「[론설] 현시기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돈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2020. 3. 7.
- \_\_\_\_\_,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에서 한 토론〉 군의 특성을 살려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켜나가겠다 - 리금옥대의원」, 2020. 4. 13.
- \_\_\_\_\_, 「당대회결정관철의 첫해 진군을 자랑찬 혁신과 전진으로 빛내이자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2021. 2. 12.
- \_\_\_\_\_,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한 토론〉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겠다 - 김창남대의원」, 2022. 2. 8.
- \_\_\_\_\_, 「〈올해 경제과업들중 급선무의 하나인 소비품생산을 강력히 내밀자〉 책임을 걸머지고 더욱 분발해야 한다 - 최근 각 도들에서의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정형을 놓고」, 2022. 8. 3.
- \_\_\_\_\_, 「보여주기사업을 정상적으로」, 2023. 3. 17.
- \_\_\_\_\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7차전원회의 진행」, 2023. 8. 31.

- 『연합뉴스』, 「북한서도 고객이 직접 골라 산다...각 상점, ‘슈퍼마켓식’ 변신」, 2020. 7. 12.
- 『조선신보』, 「‘평양에 산나물상점으로 소문난 룡흥식료품상점」, 2020. 5. 14.
- 『통일뉴스』, 「북 평천구역식료품종합상점, 경영활동 과학화로 주목 끌어」, 2018. 7. 24.

〈자료〉

- 2017년에 탈북한 평양 출신 북한이탈주민 1씨 증언, 2023. 12. 4. 인터뷰.
- 2019년에 탈북한 청진 출신 북한이탈주민 2씨 증언, 2023. 12. 1. 인터뷰.